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3년 순결서약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오늘 순결서약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교회에 등록된 10대(13세)로 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직 순결서약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로 오늘 순결서약식을 통해 결혼 전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관리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또한 오늘 서약을 하는 젊은이들 손에는 오늘의 서약을 항상 기억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

대히 하도록 돕게 되는 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차원에서 1995년 첫 주에 가장 먼저 시작한 이래 9년 동안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3년도 청지기 수련회 1월6일(월)~12일(주)

우리교회는 매년 신년 초에 그해의 교회 각 부서에서 교회의 모든 살림을 이끌어갈게 될 청지기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로 준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청지기 수련회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청지기 수련회는 6일(월)부터 12일(주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정해졌으며 요일별로 주력 부서를 나눠 진행한다. 자세한 청지기 수련회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청지기 수련회는 새벽 기도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진행된다. 올해도 많은 청지기들이 임명을 받았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헌신하여 맡기신 생명 사랑하여 맡은 부서가 부흥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한다.

구분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12일(주)
5:00~5:30	특별 새벽 기도회(강사:이중윤 목사)						
5:40~6:20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한상은 목사)	예배위원의 지체 (이상득 목사)	찬양과 예배 (윤영국 목사)	효과적 전도회 운영 (이규정 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이용식 목사)	중직자의 사명과 지체 (김오호 목사)	(찬양예배) 청지기 헌신예배 및 제직 수련회
대상	교회학교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 임원	교구일꾼	장로,권사, 안수집사	청지기 전원

오늘 공동의회 갖는다 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2002년 교회 살림을 결산하고 2003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는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인 모든 성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풍족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으로 2002년을 결산하고 더욱 크게 써주시기를 기도함으로 2003년 예산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힘써 모이는 금요기도회 3일(금) 철야 기도회부터

우리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부터 금요일철야 기도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철야 기도회를 온전히 전담하는 교역자 없이 교대로 인도하다보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우리 교회는 신년이 시작되는 3일(금) 철야 기도회부터 6개월간 오정식 목사의 인도로 금요 기도회를 활성화시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하였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70인 전도대 의욕적 출발

그 동안 수요일과 토요일에 인근 한티공원에서 노방전도를 주로 해오던 70인 전도대가 올해부터는 은마아파트를 전도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전도대원들이 2인 1조로 1년간 2개 동을 배정받아 가가호호 방문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도하여 총 500명의 등록자를 달성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전도대원 40명을 확보하여 12일 주일부터 매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03호에서 전도교육을 받고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를 택하여 전도활동을 개시한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전도회 및 선교회가 순번대로 교역자들과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서울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2003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7시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신년하례회가 내일(6일,월) 오전 7시 교회 8층 만나홀에서 열린다. 신년하례회에는 노회소속 전교회와 관계기관장(국회의원, 구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다.

2003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 2003년 1월 11일 토요일

우리 교회 고등부는 오는 2003년 1월 11일 토요일에 <아이노스의 밤>을 개최한다. <아이노스의 밤>은 고등부 학생들의 찬양과 간증, 드라마 등으로 꾸며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전파의 기회로 사용하고자 지난 1992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초청자들에게 고등부가 자체 제작한 NLC팀(New Life in Christ:고등부 찬양팀)의 CD를 선물로 증정한다. 젊은이들의 숨은 은사를 표현하고 새로운 감각에 맞는 문화를 이용한 고등부의 이번 축제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승규 영신 예배를 마치고 함께 한 당회원

2003년 신년 메시지

금년에도

(누가복음 13장 6 - 9절)



이중윤 목사

희망찬 새해가 왔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민족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온 천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지난해를 회고하며 감사드리자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과실수에 열매가 없다면 과실수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 추수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8절)라는 말속에는 전에 받은 은혜가 컸음을 회상케 합니다. 죄와 허물로 벌써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부르시어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2. 금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음을 감사드리자

당연히 짚혀 버릴받을 우리를 금년에도 여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은 우리로 하여금 금년을 허락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본래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병을 고쳐주면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금년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3. 금년은 인간의 한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작년에 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에 대하여는 참아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향하여는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자는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인내로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심판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내와 사랑의 한계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지막 기회란 제한된 기회요, 종말론적 기회이며,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금년에는 기어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므로 일어나는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4. 열매 맺는 삶을 살자

무화과나무는 화목으로도, 재목으로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오직 열매를 맺을 때에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희생적 수고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한 창조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우주적 목적이 있고 개별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 하사 이방인이 사도로 세우심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세우신 창조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위선과 외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이름 값, 자리 값, 나이 값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희망찬 200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해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금년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당신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 당신은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 당신은 매일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신앙 성장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김광신 장로(기획위원장)



세상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정도에서 멈추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뜻을 행사 속에 담아낼 수 있는지 고심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획의 본질과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도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분이심을 본받아 우리도 행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을 기하도록 하여 실행할 때는 모두가 축재 분위에서 동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행사는 적어도 3개월 전에 주관 부서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위원회와 협의 거쳐 2개월 전에 당회 승인 후 익숙해질 때까지 주관 부서가 회의와 훈련을 거치고 시작종을 울리게 하려고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인사 정책도 비정기적으로 부서마다 임명하거나 퇴임하는 것을 지양하고 분기별로 한번 씩 실시하므로 공신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행사가 마칠 때마다 손뼉을 치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 일어나도록 진지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도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서 행하고 수고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분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1월초에 시작되는 청지기 수련회가 그 첫 시작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약속하는 시발점이 되고, 전교인 체육대회로 한마음이 되며, 흥행작전 기간 중 가슴 벅찬 승전가를 불러보고, 농촌 전도대와 해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깃발을 꽂아 보고, 목회자 신학 세미나와 김치 신학 세미나에 주의 종들을 모셔서 힘을 넣어 드리고, 이웃 사랑과 교회 사랑의 상징으로 바자회도 열어보고, 기도하는 교회임을 고백하는 사명자 대회에 온 성도가 참여하도록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을 20개 교회의 연합 성

탄절 메시아 공연 주관을 통해 아름다운 성탄을 이민족에게 선물함으로써 서울교회의 2003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한 교회로 마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정수 장로(재정위원장)

12년 전 빈손 들고 시작한 서울교회가 이제는 부흥 발전을 거듭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봉사로 애쓰신 성도님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서울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 여러 번 넘어야 할 고비를 친히 이루어 가심을 늘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넘는 기적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결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는 또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지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믿음으로 실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가 늘 불안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재정을 맡은 저는 새해에도 성도들의 가정에 "네 영혼이 잘될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던 가이오 장로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과 예산은 우리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특별히 정성껏 바친 헌금이 바르게 집행되며 낭비되지 않고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모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셨으니 믿고 감사하며 출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며 근검절약하는 절제의 삶을 실천합시다.

2003년도 주요 행사 일정표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송구영신예배 5일/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순결서약식 6일~11일/ 청지기 수련회 31일~2월1일/ 통독사경회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육사출입식 주관 비전2020운동/매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일~14일/ KIMCHI 세미나 31일~6월2일/ 23학기 목회자 세미나 31일~6월2일/ 13학기 서울성경대학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일/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육사 세례식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일/ 전교인 체육대회(한마음 축제) 16일/ 가족찬양대회 23일/ 찬양대원 세미나 25일/ 장로선거(공동의회)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6일~25일/ 2003년 흥행작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일/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 및 성찬식 17일/ 노회 체육대회 7월~8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일/ 단기선교팀 파송 5일~8일/ 농어촌 전도단 파송 10일/ 장학금 수여식 14일~16/ 당회원 수련회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5일/ 2003 바자 8일~11월10일/ 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14학기 서울성경대학 개강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일~11월23일/ 2003 사명자 대회 17일/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26일/ 성경암송대회(예선) 31일/ 성경암송대회(본선)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일/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찬양예배 23일/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12주년 감사예배 및 성찬식, 임직식 30일/ 서리집사, 교구일꾼 임명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일/ 찬양대원 임명 9일/ 메시아 공연 10일/ 찬양대원(호산나, 온빛, 시온) 임명 14일/ 교사 임명 21일/ 성탄축하 찬양예배 24일/ 수요일예배 및 성탄전야 행사 25일/ 성탄절 새벽예배, 성탄절 축하예배 26일~27일/ 교역자 수련회 28일/ 각 부 교회학교 졸업, 장로 · 권사 은퇴 · 장로 안식년

선교지에서 온 편지

문형숙 선교사(중앙 아프리카)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이 이제야 연결되었고 하나님만을 결박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간 인터넷이 없는 불편함도 못 느꼈습니다. 예방 접종을 다시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중앙아프리카에서 또 쿠데타가 터져 미국 대사관과 미국 선교부가 이 나라를 떠나고 본국이나 제3국으로 떠난 미국 선교사들이 중앙아프리카 입국을 만류하는 혼란 가운데서 기도 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온 날이 마지막 남았던 미국인 교수가 떠난 후라 선교사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가 위기 중에도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수도 방기의 40km 전방에는 반란군이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10km 전방에는 이웃 콩고의

반란군이 정부군을 도우러 와서는 오히려 약탈과 겁탈을 일삼아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수도 한복판에는 대통령을 보호한다고 리비아 군이 들어와 있고 옆에는 리비아 군을 내보내라는 아프리카 연합군이 주둔한 무정부 상태입니다. 밤에는 폭격기들의 소리로 정신이 없고 가끔 적막을 깨뜨리는 총소리도 들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전쟁의 현실을 잊고 한날의 평화에 감사하며 일하고 살아 갑니다. 이곳에서 제게 주신 찬양사역 덕분에 전쟁 중에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12월23일 성탄음악제를 잘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신학생 중 창단 '에스라'를 조직하여 선을 보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에스라 그룹 8명과 신학생들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모만 합창시간을 맡았는데 성경을 1독한 사모가 한명도 없는 것을 보고 계획했는데 신학생들까지 참여하여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통독을 한번도 해본일이 없고 과중한 수업과 숙제로 며칠동안 계속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신학교 분위기였는데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대원 그리고 사모반이 통

독할 예정입니다.

2월초에는 프랑스 찬양그룹을 초청 일주일간 교회 찬양인도자 찬양학교를 열게 되고 CCC와 IFES와 연합한 대학생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학보다 더 체 적성에 맞는 일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목사님의 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움에 펼쳐지기를 기원하며 방기에서 문선교사가 올립니다.

2002년 12월 28일
문형숙 선교사 드림



2003년 모퉁이에서 섬기는 이들

현금계수 위원

송인권 조옥식 손태기 조원장 홍일성 진승근 이우진 조성엽 안창휘 오유식 하인선 이양철 김금준 윤성남 윤태욱 장두현 오치열 오형철 권혁우 양춘경 이미송 박순복 정경자 송인수 장양일 최임수 유 신

차량관리부

양인수 최광성 장화원 **강낙훈** 김관홍 김동언 김영구 박영선 윤동수 이대원 정동학 조원섭 한길동 최중시 신창호 왕재용 김재근 남정렬 유영준 구정두 고영철 최양진 임옥균 하인선 최홍렬 윤성남 이동만 윤운식 이양철 이태원 손병석 최차순

성경대학

임옥균 김은태 박경자 윤숙희 박현영

식당관리

한옥순 박연순 황인숙 송옥혜 한광마 임순자 강운숙 박영자 김영란 남태순 오충례 이영희 이은자 함은희 김미향 최정희 황재연 김현정 백혜숙

상담부

간사: 제오복 집사
 세무상담: 이우진 왕경래 이병렬 김건중
 의료상담: 안인호 하인선 이승철 이우태 박동원 오종원 김태수
 가정상담: 이현숙 김은태 유을상 주원순

법률상담: 이승준 임상현 김한성
 병무상담: 이준수 이변생 한인진 이기택
 교육상담: 이은옥 최형렬 왕경애 박천희
 결혼상담: 한해자

예배위원회

- 1부: 우지원 양재인 김광태 박조현 유근중 윤태욱 이병현 장두현 한종표 김은미 박명희 박순복 송숙영 이미송 이은자 채경희 최종희 오성애 이양철 임선철 조성엽 조원장 조옥식 진승근 최명남 권길자 김남순 김미향 김순구 김우숙 김인실 김지은 김진희 박한옥 송미자 송희숙 이정연 이혜선 임희분 전완순 정수진 홍재식 김영란 김은희 임관자 조종화
- 2부: 이동만 강석우 김성철 김진환 김희석 박경우 서창원 안현수 양춘경 정무균 김미자 김정임 양주화 이기숙 이인숙 임송자 표명자 현기옥 황영희 김혜영 고영철 김중운 손종근 오유식 이남성 정승주 하인선 **홍한규** 강명신 강희자 고완순 공진문 박선자 김숙행 김영정 박정옥 송정심 오영숙 이형희 임순자 임은자 전행자 정옥희 고윤임 한건석 안재희
- 3부: 최차순 김범석 김용수 김용숙 김현정 윤숙희 이자혁 장효정 여영숙 박형수 송성식 박창희 강애자 김경옥 김차순 김형의 남영주 박미혜 송순화 신기숙 심상필 이경화 이봉선 이승희 장부자 정희순 조상희 한춘일 황보추자 정 건
- 찬양예배: 서춘식 고영우 김성임 이미송 한춘일 유재형 윤요섭
 수요일부: 김영란 김현정 정경자
 수요일부: 김규태

비전2020 운동본부

하영수 이영기 전기섭 이갑진 이상호 오광환 신용식 탁경준 장 덕 권혁달 유관모 이준수 우상태 이영희 유근중 박경우 정인주 장두현 최임수 김봉수 홍유식 김혜란 김영주 한종표

성례부

이영희 권길자 김숙자 김숙행 김정희 박경희 박연순 박영자 안분선 양옥자 여영숙 여현진 윤문자 이부자 이성에 이영희 이인선 이혜순 장낙희 최길옥 최양혜 한춘홍 홍재식

금주의 성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눅 2:49)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Luke 2:49)

평신도 신앙강좌

-금주부터-
 교회 인물사 - 목회자편 : 신론-하나님은 누구신가?
 강사: 이만열 전도사 : 강사:김영환 목사
 주일 601호 1시 : 주일 101호 1시

고(故)김병숙권사님을 추모하며

기도의 어머니이신 당신이 떠나셨습니다

백영의 권사(11교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은 비둘기 같고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당신의 영전에서 사진 속의 당신을 보니 아가서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미소가 가득한 사진 속의 당신은 생존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은 천국에 가심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이 못 다한 기도를 부탁하시는 듯 했습니다.

김병숙 권사님은 서울교회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80여년의 삶 동안 수많은 괴로움과 시련을 묵묵히 기도 가운데 견디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사시다가 인생의 마지막 길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김병숙 권사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육신이 연약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와 권사 철야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숙 권사님은 정녕 우리에게 기도의 어머니 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자부 나연신 집사가 처음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서던 날, 외아들 강석우 집사가 안내복을 입고 봉사를 시작한 날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연로하신 남편과 병든 딸을 앞서 보내고 생을 마감하신 김병숙 권사님, 이제 편히 쉬소서!

당신이 이 땅에서 못 다하신 기도를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서울교회와 이종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일(목) 주기도문 재 번역위원회, 10일(금) 사도신경 재 번역 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9일(목) 대치동 교회 연합회창립을 위해 목회자들을 초청한다.
- 금주의 식사: 김용무 집사 · 이규의 권사 가정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해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 공동의회 통과된 새해 예산 잘 집행 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